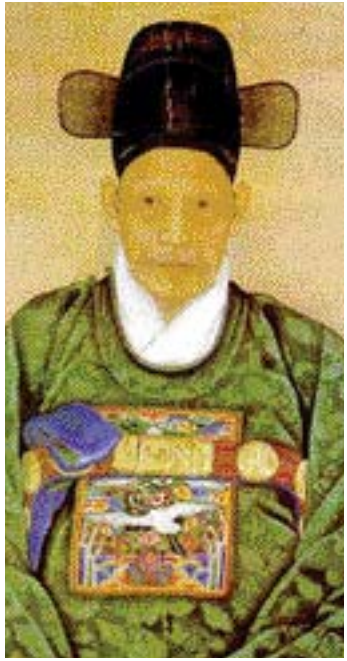


# 연극으로 보는 '의인 최익현'의 삶



면암 최익현

조선 유림의 거두 면암(勉菴) 최익현은 1906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조직했다. 순창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일분군에 대항하여 싸우다 체포된 그는 쓰시마섬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지급되는 음식물을 적어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 단식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4년 후인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됐고, 조선은 강제로 주권을 빼앗겼다. 2010년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다.

광주일보사는 (재)광주공연에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8월 31일·9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출제단,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와 함께 연극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를 무대에 올린다. 8월 31일(오후 7시30분), 9월 1일(오후 3시·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오는 8월 25일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초연되는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는 민족주권을 가슴에 품었던 인물로 타협과 꺾어짐을 거부했던 행동하는 지식인 최익현이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해 내치르는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오현경 노현희 기정수

시를 제작,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공연했고 지난해에는 의거 100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

품에 잠겨 있었던 장례식 장면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이번 작품의 대본은 대한민국의 예술원 회원인 극

## 의병활동·대마도 단식·장례식 등 파란만장한 삶 사실적으로 그려 극본 신봉승·연출 표재순씨 맡아 오현경·노현희 등 출연진도 화려

이번 작품의 제작을 맡은 'JS 씨어터'는 88서울올림픽 개·폐막식을 연출한 표재순씨가 만든 단체다. '역사와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JS씨어터'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속 대표적 인물을 선정, 작품을 만들고 있다.

2009년에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극화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린 '대한민국 안중근'을 서울과 일본·중국 등지에서 공연했다.

연극은 면암이 서술했던 흥선대원군의 엄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종에게 대한군의 실정을 고하고 관직을 박탈당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한일의정서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모습, 유생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던 기개, 대마도에서의 최후, 온 나라 사람들을 슬

작가 신봉승씨가 썼다. 신씨는 TV로 방영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을 집필했고 '소설 한명회' 등 130여편을 집필한 베테랑 작가다. 연출은 표재순씨가 맡았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타이틀을 최익현은 배우 오현경이 맡았다. 드라마 '손자병법'으로 잘 알려진 오현경은 대한민국의극대사, 백상예술대상, 동아연극상 등 국내 굴지의 연극상을 모두 휩쓴 최고의 연기자다.

또 최익현의 아내 한씨 역으로는 TV 뿐 아니라 뮤지컬과 연극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현희가 출연하며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을 수상한 원근희·임흥수 등 베테랑 배우들이 출연한다

티켓은 광주일보 구독자(1인당 2매)들에게 19일 오전10시부터 본사 16층 문화홍보국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문의 062-220-05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귀전창 작 '침동(潛動)-그림자'

# 대만 현대미술작품 대거 광주에

시립미술관 19일~10월3일 '북한어·북화술전'

대만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광주에서 선보인다. 19일~10월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제3·4전시실.

'북한어·북화술-대만현대미술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대만미술관이 기획했으며 대만현대미술의 현재와 독특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자리다.

타이를 '북한어·북화술'은 작품 하나하나가 '이야기 하기' 즉,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며 예술가들이 구술자가 되거나 북화술의 인형을 조작하는 연출자가 되어 자신의 소리를 담았다.는 점을 강조한데서 따왔다.

귀전창(郭振昌), 평홍중(彭弘智),

장야오황(張耀煌), 리전양(李俊陽), 우지충, 황스지에(黃世傑), 현이춘(陳依純), 화지엔치양(華建強) 등 작가 8명이 참여해 회화와 영상, 설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귀전창의 작품들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타 문화가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고 있으며 평홍중은 자유로운 사회의 사람과 신의 권력이 뒤바뀌어 버린 현상에 주목하고, 문명사회가 안고 있는 윤리와 권력의 허망이 붕괴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또 미국 유학파인 황스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닐 봉투, 칼라 전구, 전선 등을 해체해 상상 속

의 생물이나 환경을 표현하고 있으며 리전양은 대만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토지대감'을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현이춘의 영상작품은 현대 생활의 코드나 어휘를 이용해 놀라운 세계 소비문화의 유사성과 강제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홀함을 풍자했으며 화지엔치양은 구아슈를 사용해 우습고 황당한 현대생활의 단상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2003년 뉴욕의 린즈 미술관과의 교류전을 시작으로 2004년 국립대만미술관, 2005년 중국 광저우 예술박물관 교류전 및 2007년 국립대만미술관과의 자매결연 등 세계 주요미술관과 교류전을 열었다. 문의 062-613-71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무등산 옛길 탐방기' 공모

공원관리사무소, 시·수필 등 장르 제한 없이

가사문학과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무등산 옛길 3구간의 개방을 기념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박인종)와 광주MBC가 '아름다운 걷기, 무등산 옛길 탐방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는 산수동 장원삼거리~덕봉~충장사~풍암정~가사문화관을 잇는 무등산 옛길 3구간(11.3km)을 소재로 무등산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탐방기를 비롯해 시, 수필 등 장르에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편수와 분량은 제한이 없다.

접수는 20일부터 9월6일까지이며 이메일(t-time4u@hanmail.net)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상 1명 50만원총 3명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문의 062-360-21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대표할 창작발레 주제 찾는다

광주시, 25일까지 접수

광주를 대표할 한국창작발레의 주제를 찾는다.

광주시는 내년 광주를 상징할 대표 브랜드 창작 발레 작품 제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와 주제를 공모한다.

주제의 기본방향은 광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광산업의 메카이자 문화수도로서의 위상과 민주성지인 광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주제 ▲예향·의향·미향 등 광주의 특성을 할

용한 차별화된 내용 ▲광주의 역사, 신화, 설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면 된다.

오는 25일까지 방문,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며 8월중 심사를 통해 3~5개의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제로 선정되면 각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시상하며 선정된 주제가 작품으로 제작될 경우 소정의 대본 원고료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062-510-92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윤선도 거문고 '고산유금' 복원

국립국악원 명문·탁본 통해... 해남 윤선도 유물관 전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는 고산 윤선도(1587~1671년) 선생이 남긴 거문고인 '고산유금'(孤山遺琴·사진)을 복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악원 관계자는 "소실된 부분이 많아 그동안 임시 개관한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해남)에서 보관 중이

었던 고산유금을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명문 탁본 및 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복원했다"며 "현재 윤선도 유물관에서 전시 중"이라고 말했다.

1982년 윤선도의 14대 종손인 윤형식 씨의 서고에서 발견된 고산유금은 크기가 130cm 정도로 160cm 크기의

현재 거문고보다 작으며 앞판 4편을 서로 겹쳐 한 판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돼 한 편으로 제조하는 현재의 제조 방식과 차이가 있다.

고산유금의 앞판에는 윤선도 선생이 거문고 연주자인 반금(伴琴) 권해(權海)에게 지어준 시 '금계(琴誡)'가 새겨져 있으며 뒤판에는 윤선도의 4대손인 조선 후기의 화가 윤덕희(1685~1776년)의 낙관이 있다.

국악원은 앞으로 조선시대 거문고 악보인 '남용신보'에 기록된 음악을 되살려 윤선도 유물관이 정식 개관하는 10월에 연주회 및 복원 악기의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Dinner Show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원(1인당)

예약문의: 062-4711-1111 (예약실) / 062-4711-1112 (주최팀) / 062-4711-1113 (주최팀) / 062-4711-1114 (주최팀)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cinus**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하남점
1관 아저씨(18세)	1관 악마를보았다(18세) / 토이스토리3(전세)
2관 디센트2(18세)	2관 아저씨(18세)
3관 내니머피2(전세)/고사2(18세)	3관 악마를보았다(18세)
4관 솔트(18세)	4관 오션월드(전세)/스텝업3D(12세)
5관 오션월드(전세)/스텝업3D(12세)	5관 마음이2(전세)/토이스토리3(전세)
6관 마음이2(전세)/토이스토리3(전세)	6관 인셉션(12세)
7관 인셉션(12세)	7관 명탐정로난(전세)/디센트2(18세)
8관 악마를보았다(18세)	8관 내니머피2(전세)/아저씨(18세)
9관 악마를보았다(18세) / 토이스토리3(전세)	9관 엑스퍼리먼트(18세)/토이스토리3(전세)
10관 인셉션(12세)	10관 솔트(18세)

상무점: 1588-7941 | 하남점: 1544-0600